

소수서원[紹修書院]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 서원

1543년(중종 38) ~ 미상



1 개요

1543년(중종 38)에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安珦)을 기리기 위해서 숙수사(宿水寺)라는 사찰의 옛터에 건립된 서원이다. 당시 이름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었는데, 1550년(명종 5)에 명종이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어필(御筆) 현판을 하사함으로써 최초의 사액(賜額) 서원이 되었다. 1554년(명종 9)에 안축(安軸)과 안보(安輔)를, 1633년(인조 11)에 주세붕을 추가 배향했다.

현재 소수서원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에 있다. 서원 자체가 사적 제55호로 지정되어 있고, 주요 소장 유물로 안향 초상(국보 제111호), 주세붕 초상(보물 제717호), 문성공묘(보물 제1402호), 강학당(보물 제1403호) 등이 있다. 옛 숙수사 터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당간지주(보물 제59호)와 초석과 같은 유물도 남아있다. 그리고 1546년(명종 1) 2월 5일부터 1670년(현종 11) 7월 4일까지 소수서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 『소수서원등록(紹修書院謄錄)』과 같은 사료도 전한다. [관련사료](#)

2 백운동서원에서 '소수(紹修)'서원으로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서원은 선현에 제향을 지내고 사대부들이 모여 강학을 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지만, 우리나라 첫 번째 서원인 백운동서원의 처음 모습은 조금 달랐다. 1542년(중종 37)에 주세붕은 안향을 기리는 사묘(祠廟)를 세웠고, 건립의 주된 목적은 제향이었다.

그 이듬해인 1543년(중종 38)에 사묘 앞에 별도로 서원 건물을 세움으로써 제향과 강학을 결합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관련사료](#) 처음 입원한 유생은 3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동안 서원 건물은 사묘에 부속된 상황이었고, 제향과 교육이 조화롭게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546년(명종 1) 안향의 후손 안현(安瑗)이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고 운영 방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서원이 더욱 발전시킨 계기를 마련한 이는 퇴계 이황(李滉)이었다. 그는 조선의 당면 과제를 관료사회의 공도(公道) 회복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황은 당시 각 지방에서 성장하고 있는 의욕적인 신진 사림에게 희망을 걸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출세가 아닌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위해 참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황은 풍기군수를 역임하던 때(1548~1549) 경상도관찰사 심통원(沈通源)을 통해 백운동서원에 대한 사액과 서적·토지·노비를 하사해 줄 것을 청하였고, [관련사료](#) [관련사료](#) 조정에서는 편액을 '소수'로 정해 하사하였다. [관련사료](#) 현재 전해지는 소수서원의 현판은 명종이 직접 써서 내린 것으로, '소수'는 "이미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게 한다(既廢之學 紹而修之)"는 뜻이다.

이로써 소수서원은 국가의 공식 승인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전국 곳곳에 서원이 세워지면서 사액을 요청하는 곳이 많아졌고, 조정에서는 유학을 진흥하고 선현을 존송한다는 뜻으로 사액을 허락하였다. 1554년(명종 9)에는 정몽주(鄭夢周)를 배향하는 임고서원(臨臯書院)의 사액이 이루어졌는데, 편액을 하사하고 서책·노비·토지 등을 하사하는 일들을 소수서원의 예에 따라 시행하였다. [관련사료](#)

3 소수서원의 발전과 위기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면서 소수서원은 특권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경상도관찰사는 서원 운영을 지원하였고, 풍기 지역의 사람들과 김성일(金誠一), 권호문(權好文) 등 퇴계 이황 문하의 제자들이 소수서원에서 학문을 닦았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그러나 전국적으로 서원이 확산하면서 지방 수령들은 '수령칠사(守令七事)'의 의무 중 하나인 '학교흥(學校興, 학교를 발전시킨다)'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하였다. 따라서 수령은 서원에서의 과거 공부를 적극 장려하였는데, 수기치인을 위한 참된 학습을 권장했던 당초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겪으면서 소수서원의 위상은 주춤하였다. 경상도의 지원이 줄었고, 내부 재정도 위기를 맞았다. 17세기 이후에는 순흥, 풍기 지역에 단계서원(丹溪書院), 구만서원(龜灣書院), 우곡서원(愚谷書院) 등이 건립되면서 지방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나마 풍기군수의 지원 아래 과거 공부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로 인해 서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기존에는 과거 합격자 중심으로 서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18세기 초에는 학문적 성과를 더욱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면서 성리학 진흥에 기여하였다.

다만 서원 유생은 점차 많아졌지만, 재정이 넉넉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서원 교육을 거울에만 하거나 학생들을 교대로 가르치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지만, 재정 상황은 그다지 개선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순흥부사에게 서원 원장을 겸임하게 함으로써 수령의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순흥부사가 소수서원의 원장을 겸하는 것은 주변 서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는 퇴계 이황이 향촌 자치를 내세웠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실제로 순흥부사의 관권이 개입되면서 순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 합격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의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재정 부족이나 관권 개입 등의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소수서원의 명맥은 꾸준히 이어졌다. 1543년(중종 38)부터 1888년(고종 25)까지 4,300여 명의 유생을 배출했다고 한다.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할 때에도 제외 대상인 47개 중에 포함되었다. [관련사료](#)

4 소수서원의 내부 경관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건립되었던 만큼 건물 배치와 형식이 자유롭다. 강학 공간인 명륜당(明倫堂)이 동향, 배향 공간인 문성공묘(文成公廟)가 남향으로, 다른 건축물들 역시 특별한 중심축 없이 자유롭게 자리 잡았다.

우선 정문 바깥쪽에는 죽계(竹溪)라는 개울 옆으로 성생단(省牲壇)이 있다. 성생단은 향사에 쓸 희생(犧牲)을 검사하는 단이다. 서원의 생단은 사당 근처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수서원의 생단은 서원 입구에 있다. 진입 공간은 소박한 편이다. 그 맞은편에는 경렴정(景濂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경렴정은 주세붕이 북송의 성리학자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를 경모한다는 의미로 지은 정자이다.

경렴정에는 해서와 초서로 쓴 두 개의 편액이 있다. 해서는 이황의 글씨이고, 초서는 황기로(黃耆老)의 글씨로 알려져 있다. 한편, 죽계 건너편에는 바위 위에 '敬(경)'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는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창건하고 쓴 글씨이다. 또한 이황은 풍기군수 재직시 이곳에 흙을 쌓아 단을 만들어 취한대(翠寒臺)라고 이름 짓고, '敬'자 위에 '白雲洞(백운동)' 세 글자를 써서 음각하고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관련사료](#) 서원의 남쪽에 있는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강학당인 명륜당이 있다. 현판에는 '白雲洞(백운동)'이라고 쓰여 있다. 그 뒤쪽으로는 동재(東齋) 일신재(日新齋)와 서재(西齋)인 직방재(直方齋)가 한 건물에 있다. 다른 서원처럼 좌우 대칭의

두 건물이 아니라 정면 6칸의 한 건물에 대청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배치되었다. 한 건물에 현판이 두 개 걸려있는 형태다.

서장각 서쪽에는 사당인 문성공묘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남향하여 자리했다. 다른 건축물과 달리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유일하게 단청이 칠해져 있다.

일신재의 동쪽에는 유생들이 생활하며 공부했던 지락재(至樂齋)와 학구재(學求齋)가 있고, 직방재의 서쪽에는 책을 보관하는 서장각(書藏閣)이 있고, 그 북쪽에 고직사(庫直舍)와 영정각(影幀閣)이 있다.

5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다

서원은 향촌 사회 지식인들이 선현들을 제사 지내고, 배향 인물을 중심으로 학문적 계보를 형성하였으며, 그들을 주축으로 성리학 교육이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그러한 서원의 출발점에 소수 서원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소수서원을 비롯하여 성리학의 발전과 서원 유형의 정립 과정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9개의 서원이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